

코로나블루와 일 그리고 행복

안주엽*

1. 코로나19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1. 코로나19 대유행¹⁾

코로나19

코로나19의 발발에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자.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말 중국 후베이 성 우한시(湖北省 武漢市)에서 최초 보고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월 20일 첫 확진자(중국 우한시로부터 해외유입)가 발생하였다.²⁾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 폐렴’ 첫 확진자 발생을 공식 확인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해외 유행)에서 ‘주의’(국내 유입) 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지만, 1월 24일 2번째 확진자(해외유입), 1월 30일 국내 첫 ‘2차감염’ 사례(6번째 확진자), 2월 1일 첫 ‘3차감염’ 사례가 발생하였다.³⁾

국회는 2020년 2월 26일 감염병 유행 지역 입국금지 근거 및 환자 강제 입원 규정 등을 골자로 한 코로나3법(감염병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2020년 3월 1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대구시 및 경북의 경산·청도·봉화 지역을 감염병으로 인한 최초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우한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긴급위원회를 소집,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2020년 1월 30일)하였고, 2월 11일 이의 공식명칭을 ‘COVID-19’으로 정했다고 발표하였으며(우리나라는 2월 1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로 명명한다고 발표), 3월 11일 최고 경보단계인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였다.⁴⁾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jyahn@kli.re.kr)

1) 안주엽외(2021) 제6장 중 일부(170~175쪽)를 재정리. 이하에서는 ‘코로나19’라고 부르기로 한다.

2)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2일 ‘지단달 31일 바이러스성 폐렴 집단발병, 세계보건기구가 조사 시작, 2002~2003년 사스와 유사’(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1월 1일)를 알리기 시작. 1월 6일 ‘중국의 원인불명 폐렴환자 59명, 사스는 아니다’라는 보도, 1월 8일 질병관리본부는 공식적으로 국내에서 원인불명 폐렴 증상 환자 발생 발표. 1월 10일 중국에서 최초의 사망자가 발생, 한국에서는 2월 20일 최초의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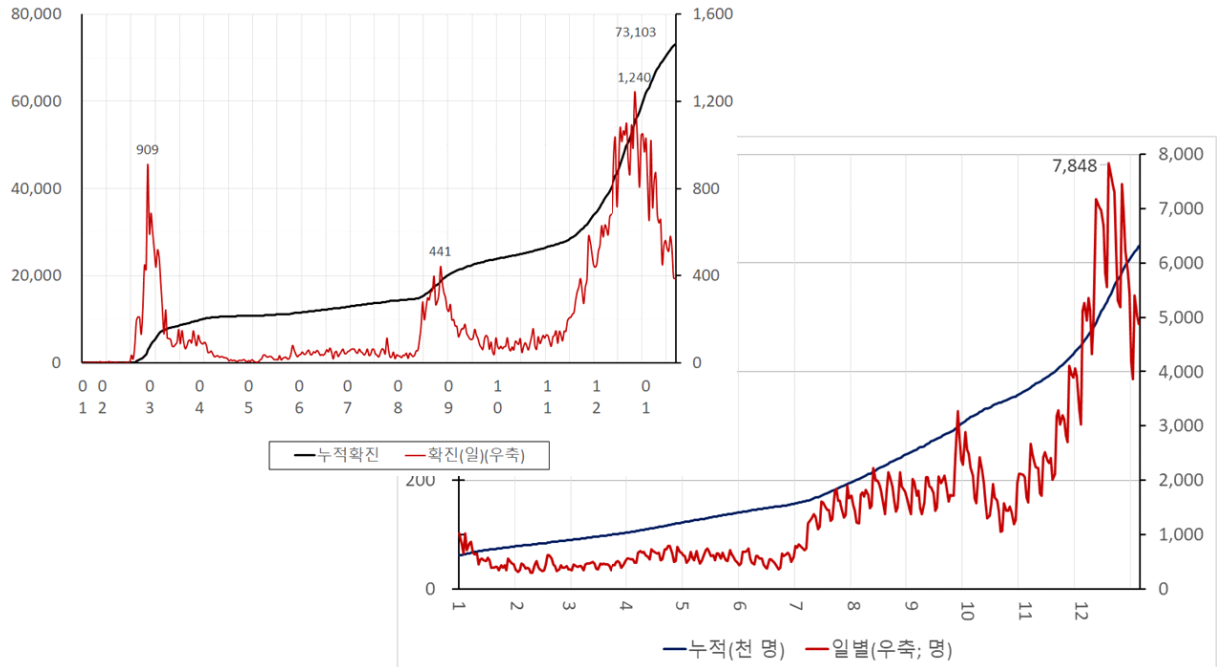
3) 2020년 1월 22일부터 ‘세계 증시의 급락’, 1월 27일부터 ‘내수 위축 불가피, 한국경제 복병으로 부상’ 등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1] 코로나19 하루 및 누적 확진자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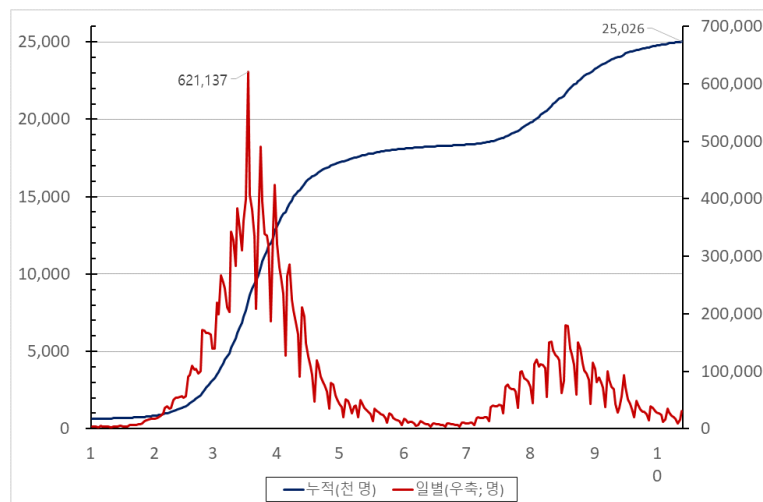
(단위: 명)

(가) 코로나19 첫 해: 2020.1.20.~2021.1.19.

(나) 코로나19 둘째 해: 2021.1.1.~2021.12.31



(다) 코로나19 셋째 해: 2022.1.1~2022.10.12



자료: 코로나공식홈페이지(<http://ncov.mohw.go.kr/>)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4) 세계적 대유행은 홍콩독감(1968년)과 신종플루(2009년)에 이어 3번째. 비상사태 선포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2014년 소아마비와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9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등에 이어 6번째.

5차례 대유행

‘우한폐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4차례의 대유행을 겪고 있는데, 제1차 유행은 2020년 2~3월 신천지교회발 대구·경북 중심의 유행(5), 제2차 유행은 2020년 8월 수도권 중심의 유행(6), 제3차 유행은 2020년 11월~2021년 1월의 전국적 유행(7) 그리고 제4차 대유행은 2021년 7월 이후 2022년 6~7월(정점은 2022년 3월 17일 621,137명)까지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제5차 대유행(정점은 8월 17일 18만 명)이 진행되고 있다(8) (코로나19 1년간 확진자 및 사망자 발생의 추이는 그림 1을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정부는 2020년 6월 28일부터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로 통일하여 시행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 도입 방침에 따라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시행하였다.

제4차 유행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일별 확진자가 3천 명을 넘었던 적(2021년 9월 25일, 3,270명)이 있었고, 위드코로나와 함께 일별 확진자가 연일 3천 명을 넘는 상황과 비교하면, 2020년의 상황이 그리 심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위드코로나 시행 4주 차인 2021년 11월 26일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과 5천 명대를 전후한 하루 확진자 발생, 600명을 넘어서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증가(12월 4일 70명),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급속한 발생 등으로 정부는 고민 끝에 2021년 12월 6일부터 위드코로나를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였다.

제4차 유행이 잦아들자 정부는 ‘2021년 12월 일상회복 잠시 멈춤(12.18.~) 이후 약 4개월 간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피로가 한계까지 누적’되었으며, ‘3월 3주를 정점으로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든 조치를 해제하였다.

5) 2020년 2월 18일 이후 신천지 대구교회의 집단감염과 경북 청도 대남병원의 확진자 급증으로 21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국내 제한적 전파)(1월 17일 조정)에서 ‘심각’(전국 확산) 단계로 상황조정.

6) 2020년 8월 중순 확진자 증가로 8월 16일부터 서울·경기 지역 및 부산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8월 19일부터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8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

7) 2020년 12월 23일부터 수도권에 ‘5명 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2021년 1월 4일부터 이를 전국으로 확대.

8)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사망자 및 사망률)는 2022년 10월 12일 기준 2천 5백만 명(28,273명, 0.11%).

코로나블루

코로나19가 발발하고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 남짓, 2020년 2월 27일 ‘감염될까 두려워-코로나블루 주의보’가 언론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코로나블루(CoronaBlue)를 신종코로나와 우울(blue)의 합성어라고 정의한 후 ‘나도 죽으면 어쩌하나, 스트레스’, ‘코로나 사태, 정신건강까지 위협’이라는 부제 하에

“눈을 감으면 흥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뉴스들이 머리 속에 맴돈다... 신종 코로나 감염 공포로 집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원인... 신종 코로나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불안감과 우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수록... 관련해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거나 수면 장애를 겪고, 의심이 많아져 사람들을 경계하고,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지는 것 등이 감염병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다 같이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황 극복에 집중할 것 등을 권고... 지금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걱정을 버리고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불안한 마음을 충분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조언”⁹⁾

이라고 적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코로나19 대유행과 국민행복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을 주창하며 들어섰던 박근혜정부의 행복도는 6.11점(2015년 제18차 조사, 1~10점)에 불과하였으며, 문재인정부 전반(2017~2019년)에는 6.4점을 전후한 수준으로 상당히 높아졌지만, 후반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2020년(제23차 조사) 6.40점, 2021년(제24차 조사) 6.37점으로 다소 낮아졌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3차 조사는 코로나19 첫해에, 제24차 조사는 코로나19 둘째 해에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부정적 누적효과가 극대화된 2022년 자료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행복도를 비교하여, 코로나블루의 존재 여부와 그 정도를 제 20~24차조사 자료(2017~2021년)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9) 2020년 2월 27일 한국일보 온라인에서 채취.

II. 코로나19와 행복도의 기초분석

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8년부터 실시하여 온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제1차 조사부터 설문항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를 통하여 전반적 생활만족도와 분야별 만족도를 5점 척도(Likert scale)로 파악하여 왔다.¹⁰⁾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제18차 조사(2015년) ‘삶의 인식 부가조사’에서 전반적 행복도와, 이에 추가하여,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 하는 일의 가치, Candril Ladder, 5년 전과 5년 후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를 11점 척도(0~10점)로 측정하였으며, 제20차 조사(2017년)부터 전반적 행복도와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 및 5년 후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¹¹⁾

전반적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항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며, 이에 대한 응답항은

0(전혀 행복하지 않다)~10(매우 행복하다)

이다.

본 장의 분석에서는 행복도와 이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표본을 이용하며, 연도별 표본 규모는 제20차 조사(2017년) 14,475개, 제21차 조사(2018년) 23,971개, 제22차 조사(2019년) 23,224개, 제23차 조사(2020년) 22,958개, 제24차 조사(2021년) 22,958개다.¹²⁾

10) 분야별 만족도는 (1) 가족의 수입 (2) 여가 활동 (3) 주거 환경 (4) 가족 관계 (5) 친인척 관계 (6) 사회적 친분 관계이며, 각각에 대한 응답항은 (1) 매우 만족스럽다 (2) 만족스럽다 (3) 보통이다 (4) 불만족스럽다 (5) 매우 불만족스럽다 5점 척도이다. 전반적 생활만족도와 분야별 만족도는 현재 진행 중인 제24차 조사(2021년)까지 계속 포함되었다.

11) 제20차 조사(2017년)부터 전반적 행복도와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는 11점 척도(0~10점)로 측정하는 반면 5년 후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1~5점)로 측정하고 있다.

12)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최초 5,000개 가구(이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13,321명)로 출발, 제12차 조사(2009년) 제1차 표본 확대에서 1,415개 가구를, 제21차 조사(2018년) 제2차 표본 확대에서 5,044개 가구를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 표본은 제18차 조사(2015년) 14,011개, 제19차 조사(2016년) 14,202개다.

1. 성·취업 여부별 행복도의 추이

<표 1>과 [그림 2]는 코로나19를 전후한 행복도의 추이를 성·취업 여부별로 보여준다. 먼저 행복도의 응답에 대한 분포를 보면, 2019년과 비교하여 2021년 0~5점까지, 특히 5점 응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늘어난 반면 6점과 7점 및 9점, 특히 7점, 응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 결과 전체(남성과 여성 각각 역시) 표본의 행복도가 코로나19 직전에 비해 2021년 상당히 낮아졌으며,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남성(0.04)보다 여성(0.08)에서 더 커서 성별 행복도가 반전된 결과를 낳았다. 미취업 남성(0.03)이나 여성(0.07)보다는 취업 남성(0.04)이나 여성(0.08)에서 부정적 효과가 미미하게 더 크지만 미취업자와 취업자 각각의 부정적 효과는 0.06으로 거의 유사(0.001 차이)한 수준이다.

<표 1> 코로나19 전후 행복도의 추이

(단위: 점/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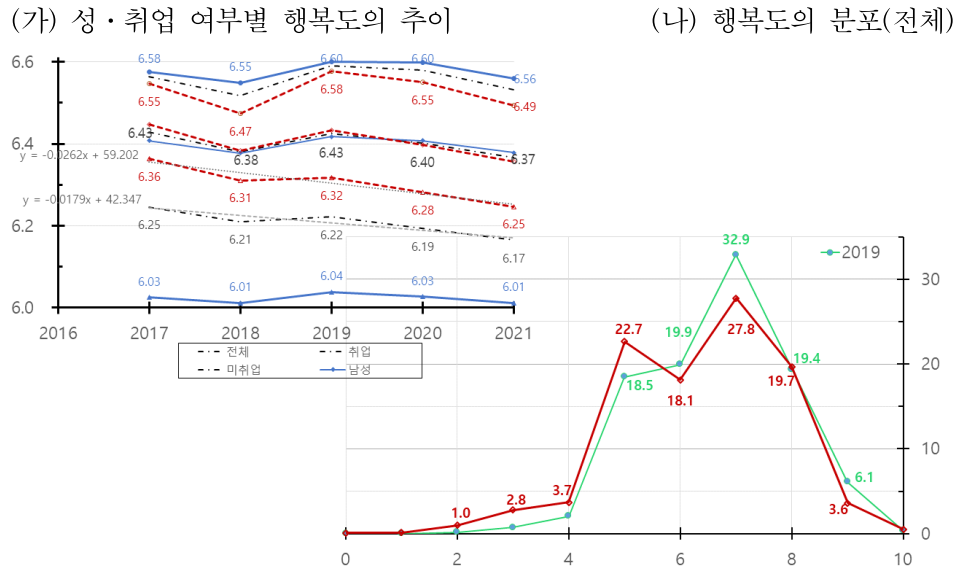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19	2019~ 2020	2019~ 2022
전체	6.429	6.380	6.425	6.402	6.367	0.004	0.023	0.058
취업	6.563	6.518	6.590	6.579	6.532	-0.027	0.011	0.058
미취업	6.246	6.210	6.222	6.193	6.165	0.024	0.029	0.057
남성	6.408	6.377	6.417	6.408	6.378	-0.009	0.009	0.039
취업남성	6.575	6.549	6.600	6.599	6.560	-0.025	0.001	0.040
미취업남성	6.025	6.012	6.039	6.027	6.012	-0.014	0.012	0.027
여성	6.448	6.383	6.433	6.398	6.357	0.015	0.035	0.076
취업여성	6.547	6.474	6.577	6.551	6.494	-0.030	0.026	0.083
미취업여성	6.363	6.311	6.318	6.281	6.247	0.045	0.037	0.071

표본: 응답 표본 전체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0~24차조사(201~2021년).

[그림 2] 코로나19 전후 행복도의 추이(성·취업여부별)와 행복도의 분포

(단위: 점/10점,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0~24차조사(2017~2021년) 원자료.

2. 성·연령대별 행복도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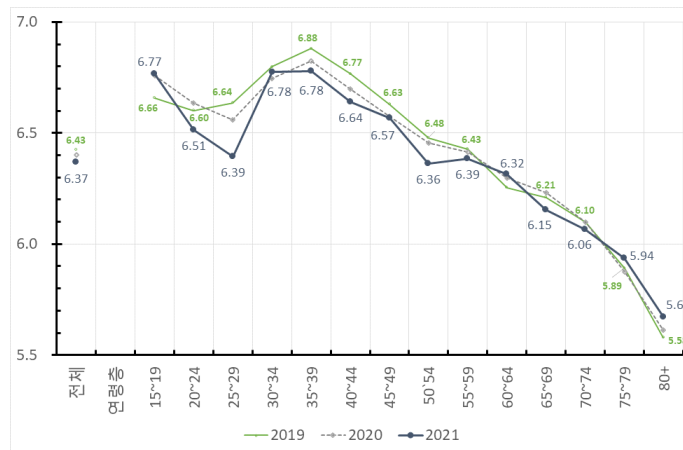
[그림 3]은 5세 연령대별 코로나19 전후 행복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행복도(2019년)는 35~39세 연령대에서 정점(전체 표본 6.88점, 남성 6.82점, 여성 6.94점)에 도달한 이후 나이를 먹을수록 행복도가 낮아지며, 남녀 모두에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미래가 없는 것인가?

코로나19의 부정적 효과를 연령대별로 보면, 25~29세와 50~54세 연령대에서 가장 크고, 35~39세, 40~44세, 20~24세, 45~49세, 65~69세 연령대 순으로 큰 반면 15~19세, 60~64세 및 75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코로나19 기간 중 행복도가 상승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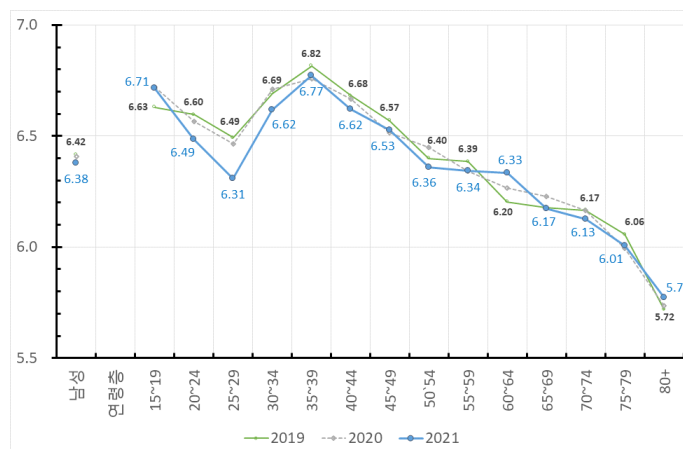
[그림 3] 코로나19 전후 성·연령대별 행복도의 변화

(단위: 점/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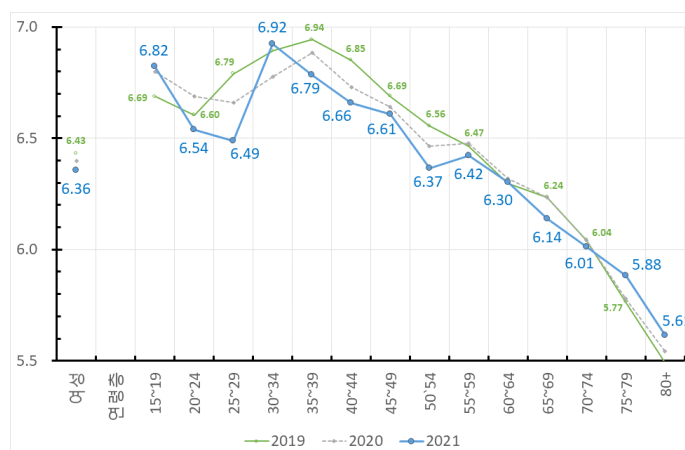
(가) 전체 표본



(나) 남성(전체)



(다) 여성(전체)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0~24차조사(2017~2021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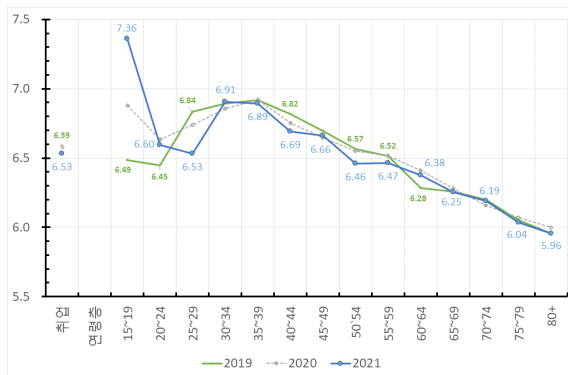
3. 연령대별 행복도의 추이: 취업 여부별

[그림 4]는 연령대별 행복도의 추이를 취업 여부별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먼저 코로나19 직전 2019년 취업자의 행복도는 25~44세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6.8~6.9점)이며, 마찬가지로, 그 이후 나이를 먹을수록 6.0점을 전후한 수준까지 행복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15~19세와 20~24세 청년층의 행복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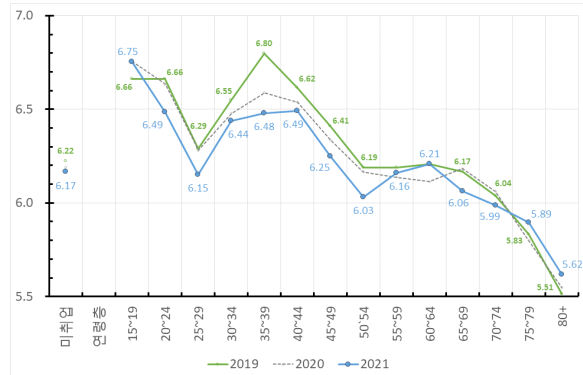
[그림 4] 코로나19 전후 연령대별 행복도의 변화: 취업여부별

(단위: 점/10점)

(가) 취업



(나) 미취업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0~24차조사(2017~2021년) 원자료.

한편 코로나19 직전 미취업자의 행복도는 35~39세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6.8점)-동연령대의 취업자의 행복도(6.92점)보다 그리 낮지 않은 수준이며, 정점을 중심으로 25~29세 연령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그 이후 50~54세 연령대(6.2점)까지 급락하다가 65~69세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이후 다시 급락한다.

코로나19의 부정적 효과를 연령대별로 보면, 먼저 취업자에서는 25~29세 연령대에서 현저하며(젊은 세대의 일자리의 질이 나빠진 것인가?), 40~44세, 50~54세 연령대에서도 다소 큰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코로나19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면 15~19세와 20~24세에서는 오히려 코로나19 기간 중 행복도가 상승하였다(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다행인가?). 한편 미취업자에서는 35~39세 연령대에서 현저하며, 주변 20~24세에서 50~54세까지와 65~69세 연령대에서 상당한 수준인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15~19세와 7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오히려 코로나19 기간 중 행복도가 상승하였다.

4. 연령대별 행복도의 추이: 성·취업 여부별

미취업 남성과 여성

[그림 5]는 취업 여부별 연령대별 행복도의 추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그림들 중 미취업 남성의 연령대별 행복도가 다른 그림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이 눈에 띈다. 35~39세 연령대에서 행복도의 정점에 도달한 후 나이를 먹을수록 행복도가 꾸준히 낮아지는 취업 남성과 여성 및 미취업 여성과는 달리 미취업 남성의 행복도는 15~19세와 20~24세 연령대의 6.6점대에서 45~49세의 저점(5.0점)까지 급락한 후 60~64세 연령대(5.9점)까지 다시 상승하고 그 이후 그리 떨어지지 않는 양상이다.¹³⁾

다음으로 여성의 취업 여부별 연령대별 행복도를 보면, 미취업자에 비해 취업 여성의 행복도는 25~29세, 50~54세, 30~34세, 45~49세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만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며,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취업여부별 행복도의 차이가 없으며, 15~19세와 20~24세에서는 오히려 미취업 여성의 행복도가 높다.¹⁴⁾

코로나19의 효과

코로나19가 행복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취업 남성에서는 25~29세와 30~34세 및 40~44세, 55~59세와 50~54세 연령대에서 현저한 반면 그 외 연령대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거의 없거나(45~49세, 35~39세, 75세 이상), 오히려 코로나19 기간 중 행복도가 상승(15~19세와 20~24세 및 60~74세 연령대)하였다.

취업 여성에서는 20~24세와 25~29세, 65~69세에서 75~79세 연령대의 행복도가 하락한 반면 그 외 연령대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거의 없거나(35~39세, 45~49세, 60~64세) 오히려 코로나19 기간 중 행복도가 상승(15~19세, 30~34세에서 40~44세까지, 50~54세와 55~59세)하였다.

미취업 남성에서는 20~24세와 25~29세, 60~64세에서 75~79세 연령대에서 다소 큰 반면 그 외 연령대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거의 없거나(35~39세, 45~49세, 60~64세, 80세 이상), 오히려 코로나19 기간 중 행복도가 상승(15~19세와 30~34세 및 40~44세, 50~54세와 55~59세 연령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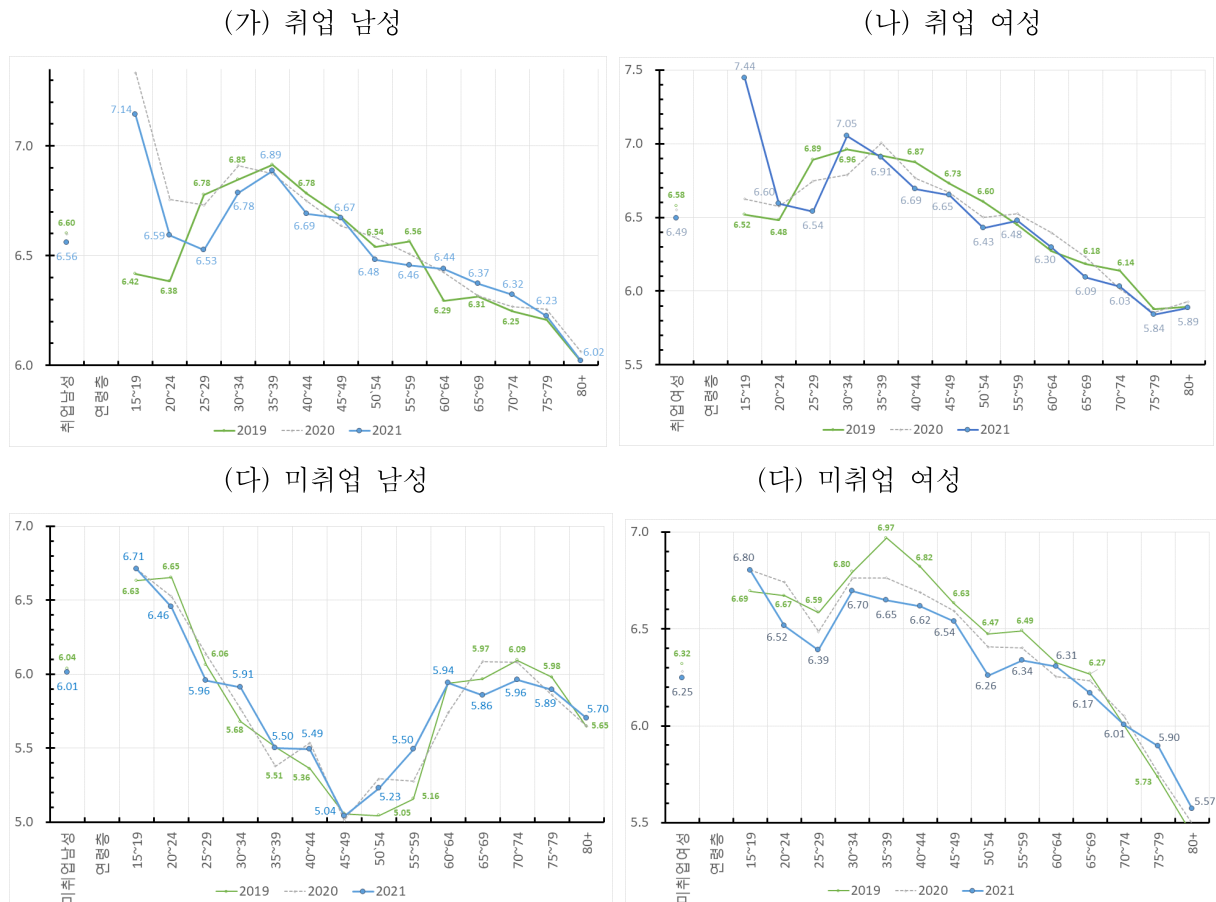
미취업 여성에서는 15~19세와 7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행복도가 하락하여 상당한 대조를 보인다.

13) 이에 대한 논의는 상대취업을 고려한 성지미(2022)를 참조. 상대취업률을 (본인의 취업 여부)-(동일 연령대의 고용률)로 정의한 후 45~49세 이후 미취업자의 행복도의 결정요인으로 상대취업률을 고려한다. 즉 내가 미취업일 때, 미취업 동연배가 많을수록 나의 행복도는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내가 취업한 상태일 때에는 미취업 동연배가 많으면 내 행복도 역시 높아지지만, 취업 동연배가 많으며, 나의 취업이 내 행복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극히 작아진다.

14) 이에 대한 논의는 안주엽외(2016, 2017, 2018, 2021)를 참조.

[그림 5] 코로나19 전후 연령대별 행복도의 변화: 성·취업여부별

(단위: 점/10점)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0~24차조사(2017~2021년) 원자료.

III. 코로나19와 행복도의 실증분석

1. 분석모형

가. 행복의 기본모형과 일모형

행복도 결정요인의 실증분석모형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구경제의 특성만을 고려한 기본모형(식 1)과 경제활동상태를 추가로 고려하는 일모형(식 2)이다. 즉,

$$H_{it} = X_{it}\beta + \nu_i + \epsilon_{it}, \quad i = 1, 2, \dots, N, \quad t = 1, \dots, T \quad (\text{식 1})$$

$$H_{it} = Z_{it}\delta + X_{it}\beta + \nu_i + \epsilon_{it}, \quad (\text{식 2})$$

H_{it} : 시점 t 에서 개인 i 의 행복도

X_{it} : 시점 t 에서 개인 i 의 행복도 결정요인

Z_{it} : 시점 t 에서 개인 i 의 경제활동상태

ν_i : 개인 i 의 고유한 그러나 관측되지 않는 요인

ϵ_{it} : 통상적 오차항(white noise)

β : 추정되어질 계수

이다.¹⁵⁾

나. 코로나19 모형

코로나19가 행복도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본모형과 일모형에 코로나19 가변수(2020년과 2021년 가변수)를 추가하고, 이와 경제활동상태의 교호항을 추가하는 한편 코로나19 관련 변수를 추가한 실증분석모형들은

$$H_{it} = C_{it}\tau + X_{it}\beta + \nu_i + \epsilon_{it} \quad (\text{식 1C})$$

$$H_{it} = C_{it}\tau + Z_{it}\delta + X_{it}\beta + \nu_i + \epsilon_{it}, \quad (\text{식 2C})$$

$$H_{it} = C_{it}\tau + Z_{it}\delta + (C_{it}Z_{it})\pi + X_{it}\beta + \nu_i + \epsilon_{it} \quad (\text{식 3})$$

$$H_{it} = R\phi + C_{it}\tau + Z_{it}\delta + (C_{it}Z_{it})\pi + X_{it}\beta + \nu_i + \epsilon_{it} \quad (\text{식 4})$$

$$C_{it} = (C_{it1}, C_{it2}) \quad (\text{코로나19})$$

$$C_{it1}(C_{it2}) = 1 \text{ for } 2020\text{년}(2021)$$

0 for 해당연도 제외

$C_{it}Z_{it}$: 시점 t 에서 코로나19와 경제활동상태의 교호항

15) 통상적 오차항은 각 시점에서 모든 개인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요인과 순수한 오차항으로 더 세분할 수 있다. 즉 $\epsilon_{it} = v_t + \omega_{it}$. 여기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복도가 0에서 10까지 연속변수가 아니라 0점에서 10점까지 정수의 순위값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잠재적 행복도와 관찰가능한 행복도를 포함한 실증분석모형은

$$H_{it}^* = X_{it}\beta + \nu_i + \epsilon_{it}, \quad \nu_i \sim iid N(0, \sigma_\nu^2), \quad \epsilon_{it} \sim N(0, 1) \quad (\text{식 1'})$$

$$H_{it} = 0 \text{ 만약 } H_{it}^* \leq \kappa_0$$

$$1 \text{ 만약 } \kappa_0 < H_{it}^* \leq \kappa_1$$

...

$$10 \text{ 만약 } \kappa_9 < H_{it}^*$$

$\kappa_k, k = 0, 1, \dots, 10, \kappa_{10} = +\infty$: 단절점(cutpoints)

이 된다. (식 1)의 추정은 통합회귀분석(pooled regression)과 패널분석, 즉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식 1')의 추정은 통상적 순위프로빗모형(ordered probit model)과 패널순위프로빗모형으로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식 1)을 고정효과모형에 적용한 추정치의 결과만 논의한다.

R : 코로나19 관련 인식(예를 들면, 코로나19의 위험성)

$\beta, \delta, \tau, \pi, \phi$: 추정되어질 계수

τ : 코로나19의 영향을 나타내는 추정되어질 계수

π : 코로나19와 취업의 교호항의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

ϕ :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

으로 정의된다.

기본모형에서 고려하는 행복도 결정요인 중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기준: 남성), 연령/10과 이의 제곱, 교육연한, 혼인상태(기준: 기혼유배우), 주관적 건강상태(기준: 보통), 가구경제의 특성은 로그 균등화소득, 거주지입주형태(기준: 자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및 부채의 보유 여부를 포함한다. 한편 일모형에 추가된 경제활동상태는 취업상태는 종사상지위-임금근로는 상용직, 임시직과 일용직, 비임금근로는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별로 구분하는 한편 미취업 상태는 실업과 비경제활동 인구 상태로 구분한다.¹⁶⁾

2. 코로나19 부가조사와 실증분석 표본

가. 코로나19 부가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은 2020년과 2021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3차 조사와 제24차 조사에서 ‘코로나19’ 부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 제24차 조사에서도 부가조사를 실시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및 인식 변화’라는 부제 하에 실시한 부가조사 설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1) 코로나19로 인한 자녀 돌봄 변화
- (2) 시간 활용¹⁷⁾ 및 만족도
- (3) 정부 지원금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적 대출
- (4) 가족원들의 코로나19 검사와 확진 및 자가격리 경험
- (5) 일자리 관련(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구분).¹⁸⁾

만족도 관련 설문항은 다양한 주체들(정부, 지자체, 교육시설, 학교, 직장, 국회및정당, 시민사회단

16) 실증분석에 포함된 설명변수의 정의와 기초통계량은 <부표 1>을 참조.

17) 시간 활용에는 수면, 취업활동, 학업 및 자기개발, 자녀돌보기, 가사활동, 디지털기기 사용, 영화/공연/전시회 관람, 여행, 종교활동, 모임, 흡연, 음주, 운동/스포츠 등을 포함한다.

18) 모든 근로자에게 각 유연근로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원격근무)의 실시 또는 사용 및 생산성에 대한 인식과 영업시간/근로시간의 변화를 파악하는 한편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발생(2020년 1월) 이후 계속근무 여부, 코로나19로 인한 휴가 사용 또는 휴직 경험을 묻고, 비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관련 다양한 항목의 변화 여부를 묻고 있다.

체, 언론, 종교시설 등의 위기 관리에 대한 만족도(0~10점 척도), 코로나19의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걱정(1~5점 척도),¹⁹⁾ 코로나19가 개인에 미친 영향(건강, 수면, 여가, 가족관계, 친구지인 연락, 채용/구직/창업 등)(0~10점 척도), 코로나19로 인한 감정(분노, 걱정, 행복, 슬픔, 그리움, 외로움, 고립감)을 느낀 빈도(1~5점 척도), 코로나19 대응 다양한 행동(1~4점 척도),²⁰⁾ 이외에 코로나19 질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평소 어려움 회복 속도(1~5점 척도), 위험감수도(0~10점 척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나. 실증분석 표본

제21차 조사(2018년)부터 표본 규모가 확대된 점을 감안하여 2018~2021년 패널자료를 사용하되 모든 조사에 응답한 개인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균형패널의 분석이다. 실증분석에 실제 사용하는 표본은, 일과 행복의 관계를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므로, 2019년 기준 25세 이상 65세 미만인 표본에서 재학(또는 휴학) 중인 자와 평소(또는 지난 주) 활동이 '통학'과 관련된 표본과 연로와 심신장애 등 표본은 제외한다.

이러한 표본선택 과정을 거쳐 8,786명에 대한 35,144개 관측치를 실증분석에 사용한다.²¹⁾

3. 일과 행복의 실증분석

가. 기본모형의 추정 결과

<표 1>은 행복도의 기본모형(식 1)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 입주형태를 제외한 모든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가구경제의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의 행복도가 남성에 비해 0.13점 정도 높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행복도가 낮아지지만 저점(전체 표본에서는 59.1세, 남성은 46세, 여성은 70세) 이후에는 행복도가 상승하는 2차식의 형태를 가진다. 교육수준은 행복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성별로 분리한 표본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다. 기혼 유배우와 비교한 모든 혼인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도가 낮으며,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이혼에서 가장 크며, 사별에서 가장 작다(남성은 별거와 미혼에서 가장 작고 여성은 사별에서 가장 작아 다소간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행복도가 현저하게 높아지는데, 매우 양호와 매우 불량 간 행복도의 차이는 1.4점(남성은 1.6점, 여성은 1.3점)에 이른다.

균등화소득으로 표현한 소득은 행복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데 이러한 효

19) 국가경제 전반, 자신의 재정 상황, 필요 의료서비스 수급, 사회안전망, 사회적 유대, 생필품 수급, 실업(해고 및 폐업), 기업의 채용 연기 등이 포함된다.

20) 외출 자제, 모임(또는 종교행사) 취소 또는 불참, 대중교통 이용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착용, 귀가 후 손씻기(손소독제 사용),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주기적 실내 환기 등이 포함된다.

21) 실증분석에 포함된 표본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부표 1>을 참조.

과의 크기에서 성별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다. 거주지의 입주형태는 행복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부동산자산이나 금융자산의 보유는 전체 표본과 남성과 여성 표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한편 부채의 보유는 남성의 행복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반면 여성에서는 그렇지 않다.

<표 1> 기본모형(식 1)의 추정 결과

변수명	전체	남성	여성
여성	.1309 (.0250) ***		
연령/10	-.7959 (.1649) ***	-1.0988 (.3422) ***	-.7919 (.2360) ***
(연령/10)의 제곱	.0673 (.0179) ***	.1188 (.0371) ***	.0566 (.0257) **
교육연한	.0315 (.0092) ***	.0344 (.0361)	.0202 (.0210)
혼인상태(기혼)			
미혼	-.4700 (.0651) ***	-.5426 (.1215) ***	-.5315 (.1062) ***
이혼	-.8305 (.1483) ***	-.8011 (.2219) ***	-.7306 (.2286) ***
별거	-.5281 (.0864) ***	-.5385 (.1417) ***	-.5801 (.1333) ***
사별	-.3876 (.1413) ***	-.6543 (.3560) *	-.3016 (.1771) *
건강상태(보통)			
매우 불량	-.7490 (.1063) ***	-1.0253 (.1873) ***	-.6458 (.1407) ***
안 좋은 편	-.3286 (.0359) ***	-.3979 (.0677) ***	-.3045 (.0461) ***
좋은 편	.3896 (.0177) ***	.4131 (.0306) ***	.3894 (.0238) ***
매우 양호	.6620 (.0438) ***	.7245 (.0662) ***	.6396 (.0648) ***
균등화소득(로그)	.1354 (.0070) ***	.1286 (.0116) ***	.1459 (.0095) ***
입주형태(자가)			
전세	.0140 (.0334)	.0190 (.0584)	.0181 (.0456)
월세	-.0572 (.0417)	-.0371 (.0725)	-.0794 (.0578)
기타	.0496 (.0658)	.1620 (.1087)	-.0665 (.0958)
부동산자산 보유	.1016 (.0276) ***	.1537 (.0482) ***	.0550 (.0373) ***
금융자산	.2740 (.0233) ***	.2330 (.0392) ***	.3318 (.0311) ***
부채	.0402 (.0190) **	.0910 (.0320) ***	.0343 (.0256)
상수	7.1854 (.4041) ***	7.4356 (.9384) ***	7.6008 (.6498) ***

주 :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 안은 표본오차.

표본 : 2019년 기준 25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중 4차례 조사에 모두 응답하고, 통학 관련 또는 연로나 심신장애 등이 아닌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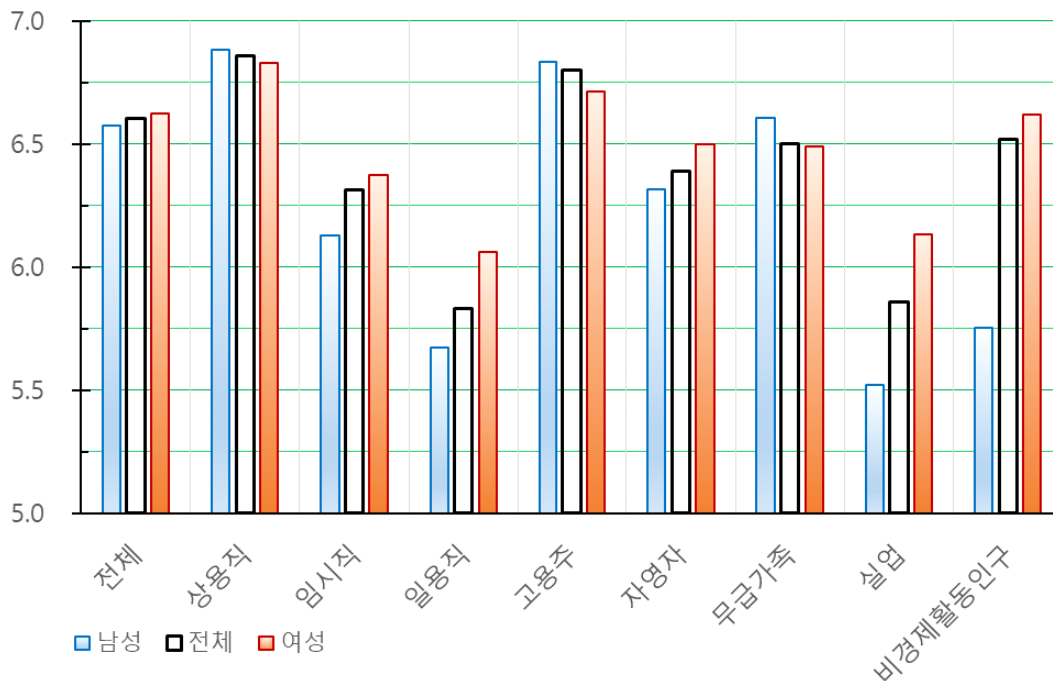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1~24차조사(2018~2021년).

나. 일모형의 추정 결과

[그림 6]은 경제활동상태별 행복도의 차이를 성별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경제활동상태와 행복도

(단위: 점/10점)



표본: 2019년 기준 25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중 4차례 조사에 모두 응답하고, 통학 관련 또는 연로나 심신장애 등이 아닌 자.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1~24차조사(2018~2021년).

<표 2>는 행복도의 일모형(식 2)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 먼저 <표 1>의 기본모형의 추정결과와 비교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가구경제 특성의 추정치의 크기나 유의수준이 거의 변하지 않아 기본모형의 추정치가 강건함(robust)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상태별 추정치는 성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비경제활동인구와 비교할 때, 남성 상용직의 행복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반면 여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반면 여성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행복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반면 남성에서는 이들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긍정적 경향을 보여준다. 비임금근로의 세 유형 모두 남성의 행복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반면 여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이들의 효과가 부정적 경향을 보여준다. 실업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부정적 효과의 크기 역시 유사한 수준이다.

<표 2> 일모형(식 2)의 추정 결과

변수명	전 체	남 성	여 성
경제활동상태(기준: 비경활인구)			
상용직	.1317 (.0285) ***	.3258 (.0698) ***	.0334 (.0404)
임시직	-.0415 (.0373)	.1061 (.0923)	-.1088 (.0475) **
일용직	-.1285 (.0540) **	.0079 (.1064)	-.2269 (.0844) ***
고용주	.0665 (.0521)	.2744 (.1019) ***	-.1003 (.0985)
자영자	.0201 (.0413)	.1811 (.0893) **	-.0303 (.0698)
무급가족종사	.0169 (.0695)	.6939 (.2334) ***	-.0489 (.1102)
실업	-.2298 (.0524) ***	-.1982 (.0917) **	-.1871 (.0703) ***
여성	.1629 (.0275) ***		
연령/10	-.8259 (.1651) ***	-1.1878 (.3424) ***	-.7772 (.2365) ***
(연령/10)의 제곱	.0717 (.0179) ***	.1304 (.0371) ***	.0555 (.0257) **
교육연한	.0270 (.0092) ***	.0310 (.0361)	.0158 (.0211)
혼인상태(기혼)			
미혼	-.4667 (.0650) ***	-.5299 (.1213) ***	-.5288 (.1066) ***
이혼	-.8226 (.1482) ***	-.7868 (.2215) ***	-.7128 (.2286) ***
별거	-.5393 (.0864) ***	-.5542 (.1415) ***	-.5736 (.1335) ***
사별	-.3833 (.1411) ***	-.6722 (.3554) *	-.2966 (.1770) *
건강상태(보통)			
매우 불량	-.7571 (.1063) ***	-.9985 (.1874) ***	-.6643 (.1408) ***
안 좋은 편	-.3215 (.0360) ***	-.3745 (.0677) ***	-.3100 (.0461) ***
좋은 편	.3866 (.0177) ***	.4116 (.0305) ***	.3894 (.0238) ***
매우 양호	.6610 (.0438) ***	.7285 (.0661) ***	.6434 (.0648) ***
균등화소득(로그)	.1293 (.0072) ***	.1117 (.0121) ***	.1461 (.0097) ***
입주형태(자가)			
전세	.0118 (.0333)	.0139 (.0582)	.0183 (.0456)
월세	-.0592 (.0416)	-.0331 (.0723)	-.0788 (.0579)
기타	.0476 (.0657)	.1729 (.1085)	-.0729 (.0957)
부동산자산 보유	.1022 (.0276) ***	.1555 (.0481) ***	.0562 (.0373)
금융자산	.2730 (.0233) ***	.2346 (.0391) ***	.3323 (.0311) ***
부채	.0408 (.0189) **	.0920 (.0319) ***	.0348 (.0256)
상수	7.2504 (.4041) ***	7.4776 (.9369) ***	7.6269 (.6506) ***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 안은 표본오차.

표본과 자료: <표 1>의 표본과 자료 참조.

4. 코로나19와 행복의 실증분석

가. 기본모형과 일모형에서 코로나19의 효과

<표 3>은 행복의 기본모형과 일모형에 코로나19의 효과를 고려한 (식 1C)와 (식 2C)의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 두 모형의 전체 표본과 남성 표본의 추정에서 2020년 코로나19의 부정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2021년 코로나19의 부정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한계선 상에서 유의한 정도인 반면 여성 표본의 추정 결과는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의 부정적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후자의 효과가 더 크다.

한편 코로나19 효과의 추가에 따라 경제활동상태의 추정치의 크기나 유의수준은 거의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 코로나19의 효과: 기본모형(식 1C)과 일모형(식 2C)

변수명	전체	남성	여성
기본모형			
코로나19(2020년)	-.0157 (.0135)	-.0334 (.0260)	-.0436 (.0182) **
코로나19(2021년)	-.0533 (.0143) ***	-.0524 (.0327) +	-.1104 (.0210) ***
일모형			
코로나19(2020년)	-.0165 (.0135)	-.0356 (.0260)	-.0463 (.0182) **
코로나19(2021년)	-.0572 (.0143) ***	-.0602 (.0326) *	-.1150 (.0211) ***
경제활동상태(기준: 비경활인구)			
상용직	.1325 (.0286) ***	.3246 (.0698) ***	.0348 (.0403)
임시직	-.0440 (.0373)	.1039 (.0923)	-.1162 (.0475) **
일용직	-.1344 (.0540) **	-.0008 (.1065)	-.2349 (.0844) ***
고용주	.0621 (.0521)	.2695 (.1020) ***	-.1091 (.0985)
자영자	.0164 (.0414)	.1767 (.0894) **	-.0401 (.0698)
무급가족종사	.0104 (.0695)	.7017 (.2334) ***	-.0772 (.1103)
실업	-.2330 (.0524) ***	-.2040 (.0917) **	-.1952 (.0703) ***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 안은 표본오차.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가구경제의 특성에 대한 추정치는 보고하지 않음.

표본과 자료: <표 1>의 표본과 자료 참조.

나. 코로나19와 경제활동상태의 교호 효과

<표 4>은 일모형에 코로나19와 경제활동상태의 교호 효과를 고려한 (식 3)의 추정 결과를 보여 준다. 표에서 보듯, 코로나19가 비경제활동인구 상태에 미친 부정적 효과는 2020년과 2021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이러한 효과의 크기는 후자가 2배에 이른다. 코로나19가 그 외 경제활동상태의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는 2020년에는 전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2021년에는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행복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러한 효과에서 성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4> 코로나19와 경제활동상태의 교호 효과(식 3)의 추정 결과

변수명	전체	남성	여성
코로나19(2020년)			
상용직	.0246 (.0210)	-.0459 (.0323)	.0407 (.0312)
임시직	-.0508 (.0477)	-.0326 (.1002)	-.0736 (.0555)
일용직	-.0535 (.0695)	-.0370 (.0954)	-.1846 (.1069) *
고용주	-.0309 (.0719)	.0271 (.0899)	-.1430 (.1306)
자영자	-.0134 (.0443)	-.1022 (.0619) *	.0218 (.0689)
무급가족종사	-.0429 (.0736)	-.0975 (.2362)	-.0607 (.0787)
실업	.0911 (.1134)	.3546 (.1723) **	-.2148 (.1554)
비경제활동인구	-.0678 (.0257) ***	.0127 (.0823)	-.1022 (.0281) ***
코로나19(2021년)			
상용직	-.0160 (.0214)	-.0850 (.0380) **	-.0332 (.0326)
임시직	.0086 (.0491)	.0044 (.1036)	-.0133 (.0582)
일용직	.0679 (.0714)	.1840 (.0995) *	-.2324 (.1122) **
고용주	-.0958 (.0713)	-.0579 (.0930)	-.2842 (.1265) **
자영자	-.1131 (.0448) *	-.1551 (.0661) **	-.1693 (.0706) **
무급가족종사	-.1894 (.0738) **	-.2993 (.2381)	-.2083 (.0795) ****
실업	.0429 (.1152)	.1599 (.1817)	-.1869 (.1550)
비경제활동인구	-.1248 (.0266) ***	.0495 (.0873)	-.1764 (.0306) ***
경제활동상태(기준: 비경제활동인구)			
상용직	.0843 (.0317) ***	.3849 (.0809) ***	-.0428 (.0444)
임시직	-.0830 (.0436) *	.1412 (.1077)	-.1690 (.0548) ***
일용직	-.1820 (.0590) ***	-.0116 (.1189)	-.2085 (.0949) **
고용주	.0366 (.0570)	.3083 (.1143) ***	-.0675 (.1128)
자영자	-.0055 (.0456)	.2748 (.1021) ***	-.0678 (.0772)
무급가족종사	.0248 (.0762)	.8276 (.2564) ***	-.0845 (.1140)
실업	-.3126 (.0678) ***	-.2889 (.1178) **	-.1733 (.0948) *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 안은 표본오차.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가구경제의 특성에 대한 추정치는 보고하지 않음.

표본과 자료: <표 1>의 표본과 자료 참조.

다. 코로나19 관련 인식의 효과

<표 5>는 일모형에 코로나19와 경제활동상태의 교호 효과를 고려한 모형에 코로나19 관련 인식을 추가한 모형 (식 4)의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부가조사에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측면에서의 인식과 실제를 파악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표 5> 코로나19 관련 인식의 효과(식 4)의 추정

변수명	전체			남성			여성		
코로나19 관련									
코로나확진경험	.0791	(.2947)		.4910	(.7965)		.0804	(.4011)	
코로나인식	.1365	(.0168)	***	.1388	(.0273)	***	.1326	(.0210)	***
위험감수	.0279	(.0076)	***	.0330	(.0124)	***	.0235	(.0095)	**
위기회복속도	.1045	(.0178)	***	.0856	(.0293)	***	.1146	(.0221)	***
정부관리만족	.0723	(.0074)	***	.0578	(.0121)	***	.0795	(.0092)	***
코로나19(2020년)									
상용직	-.0388	(.0213)	*	-.1016	(.0329)	***	-.0256	(.0315)	
임시직	-.1146	(.0477)	**	-.0963	(.1002)		-.1377	(.0554)	**
일용직	-.1032	(.0693)		-.0695	(.0951)		-.2534	(.1066)	**
고용주	-.0865	(.0717)		-.0172	(.0896)		-.2178	(.1300)	*
자영자	-.0736	(.0443)	*	-.1421	(.0619)	**	-.0557	(.0688)	
무급가족종사	-.0990	(.0734)		-.1557	(.2353)		-.1198	(.0785)	
실업	.0503	(.1129)		.3089	(.1717)	*	-.2476	(.1546)	
비경활인구	-.1236	(.0259)	***	-.0343	(.0822)		-.1610	(.0284)	***
코로나19(2021년)									
상용직	.0479	(.0218)	**	-.0283	(.0385)		.0331	(.0329)	
임시직	.0724	(.0490)		.0697	(.1035)		.0509	(.0581)	
일용직	.1344	(.0713)	*	.2352	(.0993)	**	-.1520	(.1118)	
고용주	-.0299	(.0711)		-.0092	(.0927)		-.1953	(.1260)	
자영자	-.0592	(.0448)		-.1166	(.0661)	*	-.0995	(.0704)	
무급가족종사	-.1330	(.0736)	*	-.2304	(.2373)		-.1502	(.0793)	*
실업	.0838	(.1147)		.1712	(.1809)		-.1269	(.1543)	
비경활인구	-.0648	(.0268)	**	.1081	(.0873)		-.1145	(.0308)	***
경제활동상태(기준: 비경제활동인구)									
상용직	.0873	(.0316)	***	.3850	(.0806)	***	-.0376	(.0442)	
임시직	-.0803	(.0434)	*	.1430	(.1072)		-.1648	(.0544)	***
일용직	-.1736	(.0587)	***	.0082	(.1184)		-.2011	(.0944)	**
고용주	.0424	(.0568)		.3156	(.1138)	***	-.0576	(.1122)	
자영자	-.0045	(.0454)		.2781	(.1017)	***	-.0719	(.0768)	
무급가족종사	.0243	(.0758)		.8303	(.2553)	***	-.0868	(.1134)	
실업	-.3145	(.0675)	***	-.2915	(.1173)	**	-.1731	(.0943)	*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 안은 표본오차.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가구경제의 특성에 대한 추정치는 보고하지 않음.

표본과 자료 : <표 1>의 표본과 자료 참조.

- (1)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코로나 확진 경험)
- (2) 코로나19 질환에 대한 인식(코로나 인식)
- (3) 코로나19 위기관리 주체에 대한 만족도(정부관리만족)
- (4) 위험감소
- (5) 위기회복속도

를 선택하였다.²²⁾

표에서 보듯,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하지 않는데, <부표 1>에서 보듯, 확진 경험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특정한 효과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확진 규모가 엄청난 수준에 이른 2022년에 시행 중인 제25차 조사를 포함하였을 때 효과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결과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이러한 인식의 지표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다. 이는 위험감수도가 높을수록, 평소 어려움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질환을 더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행복도가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질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행복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위험감수도와 회복속도의 행복도와의 긍정적 관계에 대한 고찰 역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부표 3 참조).

IV. 연구 요약 및 향후 연구방향

1. 연구 요약

2. 향후 연구방향

22) 제23~24차 조사에서 응답의 분포는 <부표 1-2>를 참조. 실증분석에서는 제21~22차 조사(2018년과 2019년)는 관련 설문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임시적으로' 제23~24차 조사의 응답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코로나 확진 경험은 물론 0을 부여하였다.

참고문헌

- 성지미(2022), “중고령 남성의 취업과 행복도: 상대취업률의 효과,” 한국경제연구 40(2), 125~160.
- 안주엽 · 길현중 · 김주영 · 김지경 · 오선정 · 정세은, 『일과 행복(Ⅱ)』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6-36-01,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2016.
- 안주엽 · 오선정 · 최세림 · 이승호 · 신선호, 『생애노동과 행복의 패널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연
구보고서 2021-02,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2021.
- 안주엽 · 이경희 · 길현중 · 오선정 · 김주영 · 김종숙 · 김난숙(2015), 『일과 행복(Ⅰ)』 인문사회연
구회 협동연구총서 15-27-01,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2015.
- 안주엽 · 이경희 · 오선정 · 강동우 · 김주영 · 정세은 · 손호성 · 박진 · 이선연 · Andrew Clark,
Garry F. Barrett · Fumio Ohtake · Kadir Atalay(2017), 『일과 행복(Ⅲ)』 인문사회연
구회 협동연구총서 17-34-01,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2017.

<부표 1> 변수의 정의와 기초통계량

변수명	정의	전체		남성		여성	
평균							
행복도(0~10)		6.60	(1.40)	6.57	(1.42)	6.63	(1.39)
코로나확진경험		.0049	(.070)	0.0035	(.059)	0.0059	(.077)
코로나인식		4.38	(.69)	4.35	(.69)	4.41	(.69)
위험감수		5.16	(1.82)	5.39	(1.77)	5.01	(1.83)
위기회복속도		3.19	(.76)	3.27	(.75)	3.13	(.76)
정부관리만족		6.20	(1.88)	6.19	(1.86)	6.21	(1.89)
연령(세)		46.8	(10.7)	46.0	(10.6)	47.3	(10.8)
교육연한(년)		13.2	(2.9)	13.7	(2.7)	12.9	(2.9)
건강상태		3.59	(.65)	3.67	(.64)	3.54	(.65)
균등화소득		260	(170)	266	(172)	257	(168)
부동산자산보유		0.176	(.381)	0.176	(.381)	0.176	(.381)
금융자산보유		0.869	(.337)	0.867	(.340)	0.871	(.335)
부채보유		0.476	(.499)	0.482	(.500)	0.472	(.499)
빈도							
혼인상태							
미혼		5,094	(14.5)	2,956	(20.6)	2,138	(10.3)
기혼유배우		26,631	(75.8)	10,266	(71.7)	16,365	(78.6)
이혼		279	(0.8)	120	(0.8)	159	(0.8)
별거		2,097	(6.0)	872	(6.1)	1,225	(5.9)
사별		1,043	(3.0)	113	(0.8)	930	(4.5)
건강상태							
매우 불량		155	(0.4)	52	(0.4)	103	(0.5)
안 좋은 편		1,655	(4.7)	548	(3.8)	1,107	(5.3)
보통		11,569	(32.9)	4,143	(28.9)	7,426	(35.7)
좋은 편		20,689	(58.9)	8,965	(62.6)	11,724	(56.3)
매우 양호		1,076	(3.1)	619	(4.3)	457	(2.2)
거주지 입주형태							
자가		22,548	(64.2)	8,912	(62.2)	13,636	(65.5)
전세		6,241	(17.8)	2,601	(18.2)	3,640	(17.5)
월세		5,248	(14.9)	2,282	(15.9)	2,966	(14.3)
기타		1,107	(3.2)	532	(3.7)	575	(2.8)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4,853	(42.3)	8,177	(57.1)	6,676	(32.1)
임시직		2,857	(8.1)	735	(5.1)	2,122	(10.2)
일용직		1,419	(4.0)	842	(5.9)	577	(2.8)
고용주		1,427	(4.1)	1,010	(7.1)	417	(2.0)
자영자		3,427	(9.8)	2,073	(14.5)	1,354	(6.5)
무급가족종사		1,149	(3.3)	132	(0.9)	1,017	(4.9)
실업		614	(1.8)	277	(1.9)	337	(1.6)
비경제활동인구		9,398	(26.7)	1,081	(7.6)	8,317	(40.0)
표본		35,144		14,327		20,817	

주: () 안은 표준오차 또는 구성비(%).

표본: 2019년 기준 25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중 4차례 조사에 모두 응답하고, 통학 관련 또는 연
로나 심신장애 등이 아닌 자.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1~24차조사(2018~2021년)

<부표 2> 코로나19 관련 인식

(단위: 점/10점)

	위험감수도				정부의 위기관리에 대한 만족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0	339	(3.9)	298	(3.4)	24	(0.3)	62	(0.7)	0
1	95	(1.1)	153	(1.7)	83	(0.9)	118	(1.3)	1
2	338	(3.8)	481	(5.5)	125	(1.4)	697	(7.9)	2
3	659	(7.5)	1,150	(13.1)	297	(3.4)	548	(6.2)	3
4	616	(7.0)	817	(9.3)	402	(4.6)	584	(6.6)	4
5	2,229	(25.4)	2,529	(28.8)	998	(11.4)	2,292	(26.1)	5
6	1,826	(20.8)	1,385	(15.8)	1,601	(18.2)	1,245	(14.2)	6
7	1,631	(18.6)	1,243	(14.1)	1,888	(21.5)	1,578	(18.0)	7
8	895	(10.2)	653	(7.4)	2,109	(24.0)	958	(10.9)	8
9	141	(1.6)	60	(0.7)	852	(9.7)	417	(4.7)	9
10	17	(0.2)	17	(0.2)	407	(4.6)	287	(3.3)	10
	코로나19 질환에 대한 인식				어려움으로부터의 회복 속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1	22	(0.3)	24	(0.3)	220	(2.5)	385	(4.4)	1
2	132	(1.5)	199	(2.3)	1,041	(11.8)	993	(11.3)	2
3	727	(8.3)	959	(10.9)	4,228	(48.1)	4,902	(55.8)	3
4	2,987	(34.0)	3,295	(37.5)	2,833	(32.2)	2,230	(25.4)	4
5	4,918	(56.0)	4,309	(49.0)	464	(5.3)	276	(3.1)	5

표본: 2019년 기준 25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중 4차례 조사에 모두 응답하고, 통학 관련 또는 연
 로나 심신장애 등이 아닌 자.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3~24차조사(2020~2021년).

<부표 3> 코로나19 관련 인식과 행복도

(단위: 점/10점)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6.55	6.56	6.56	6.55	6.56	6.56	
	위험감수도			정부의 위기관리에 대한 만족도			
0	6.84	6.72	6.76	6.10	6.19	6.16	0
1	7.08	7.07	7.07	6.48	6.46	6.47	1
2	6.17	5.98	6.03	5.94	5.80	5.85	2
3	6.21	6.35	6.31	6.30	6.50	6.43	3
4	6.08	6.42	6.31	6.43	6.49	6.47	4
5	6.12	6.32	6.25	6.51	6.42	6.45	5
6	6.70	6.68	6.69	6.74	6.67	6.69	6
7	7.01	7.10	7.06	6.71	6.74	6.73	7
8	7.22	7.34	7.28	6.73	6.91	6.85	8
9	7.68	7.48	7.58	6.46	6.79	6.67	9
10	6.75	8.00	7.41	7.04	6.88	6.94	10
	코로나19 질환에 대한 인식			어려움으로부터의 회복 속도			
1	6.75	6.78	6.77	5.56	5.47	5.50	1
2	6.08	6.04	6.05	5.95	5.79	5.85	2
3	6.39	6.49	6.46	6.33	6.35	6.34	3
4	6.89	6.89	6.89	6.59	6.66	6.63	4
5	7.00	7.24	7.13	6.61	6.57	6.58	5

표본: 2019년 기준 25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중 4차례 조사에 모두 응답하고, 통학 관련 또는 연
로나 심신장애 등이 아닌 자.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4차조사(2021년).

